

제33호(2017. 5. 17.)

## 2016년 폐업지원 대상 농가의 작목전환 의향 분석과 시사점

송우진 유정호 명수환



1. 2016년도 폐업지원 현황 .....	1
2. 2016년도 지원 대상 품목의 수급 현황 .....	3
3. 폐업지원 농가 작목전환 의향 조사 결과 .....	6
4. 요약 및 시사점 .....	11

감 수	지인배 연구위원	061-820-2132	jiinbae@krei.re.kr
내용 문의	송우진 연구위원	061-820-2328	gnos@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http://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요약



- 2016년도 폐업지원 품목은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로 총 4,695농가에서 1,662ha를 신청하였음.
  - 노지포도와 시설포도의 신청 농가 수는 각각 3,207호와 332호였으며, 신청 면적은 1,108ha와 129ha로 각각 전체 면적의 9.0%와 6.4%를 차지
  - 블루베리 신청 농가 수는 1,156호였으며, 신청 면적은 426ha로 전체 면적의 7.2%를 차지
- 2016년 폐업보상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지속 의향과 전환작목 의향 조사 결과
  - 폐업보상을 신청한 이유는 해당 품목의 지속적인 가격 하락과 고령화로 인한 영농의 어려움이었음.
  - 폐업보상 농가의 83.6%는 품목을 전환하여 농업생산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하였음.
  - 전환품목으로 복숭아 등 과수부류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이는 2016년 폐업농가 조사(2015년 폐업지원)와 동일한 결과임.
  - 전환작목을 선택하는 기준은 재배의 용이성, 판로확보, 고소득의 순으로 조사됨.
- 폐업 후 전환품목이 특정 품목으로 집중될 경우 가격 하락의 우려가 있음.
  - 복숭아는 FTA에 따른 시장개방의 직접 영향에서 벗어나 있고 비교적 재배가 용이하여 폐업보상을 받은 농가가 전환작목으로 선호하는 작목임. 이에 따라 복숭아 재배 면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폐업보상 농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폐업면적의 12.4%(2015년), 11.5%(2016년)가 복숭아로 전환되었음. 이는 복숭아 재배면적의 1.3%(2015년), 0.8%(2016년)에 해당함.
  - 향후에도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FTA 폐업보상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폐업 농가의 품목 전환 또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복숭아가 폐업 후 전환대상 품목으로 선택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복숭아 재식 후 성목이 되는 기간은 4년으로 알려져 있음. 2015년과 2016년 폐업보상으로 인한 작목전환 효과는 각각 2019년과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이는 복숭아에 대한 재배 의향이 집중되더라도 즉시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고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락 압력도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함.
  - 유목기간이 경과하고 생산량 증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복숭아 생산 과잉과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숭아 농가의 피해가 우려됨.
- 관측 기능과 정책 홍보 기능을 강화하여 폐업지원 대상 농가가 대체작목을 선택할 때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해 작목 전환에 따른 2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FTA 폐업지원 대상 품목은 '04년~'16년까지 총 14개 품목

## 1. 2016년도 폐업지원 현황

### 1.1. 폐업지원 추진경과

□ FTA 폐업지원제도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한 지원으로 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위해 수립

- FTA 폐업지원 대상 품목은 「FTA지원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폐업지원 대상 품목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한 품목
  - 폐업지원 대상 품목은 피해보전직접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표 1. 폐업지원 대상 품목 선정요건

1. 제4조에 따라 피해보전직접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재배·사육의 투자비용이 크고, 폐업 시 투자비용 회수 곤란한 품목일 것 나. 재배·사육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품목일 것 다. 그 밖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일 것
--

□ FTA 폐업지원 대상 품목은 '04년부터 '16년까지 총 14개 품목

- FTA 폐업지원 대상 품목 총 14개 중 과수 9개, 축산 4개, 임산물 1개가 선정된 바 있음.
  - 과수 중 시설포도와 노지포도는 각각 3회와 2회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되었으며 2015년과 2016년 두해에 걸쳐 지원되었음.
  - 축산은 한우 송아지가 2013년과 2014년도 두해에 걸쳐 폐업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바 있음.

표 2. 폐업지원 추진경과

구 분	'04~'08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소 계
품목 (품목 수)	시설포도, 복숭아, 키위 (3개)	한우, 한우 송아지 (2개)	한우 송아지 (1개)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5개)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3개)	14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016년도 폐업지원 대상 품목은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 1.2. 2016년도 폐업지원금 신청과 품목별 지급 현황 분석

### □ 2016년도 폐업지원 대상 품목은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 2016년도 폐업지원은 총 4,695농가에서 1,662ha를 신청하였음.
  - 노지포도와 시설포도의 신청 농가 수는 각각 3,207호와 332호였으며, 신청 면적은 1,108ha와 129ha로 각각 전체 면적의 9.0%와 6.4%를 차지
  - 블루베리 신청 농가 수는 1,156호였으며, 신청 면적은 426ha로 전체 면적의 7.2%를 차지
- 작목별 지급단가는 노지포도 5,835만 원/ha, 시설포도 9,015만 원/ha, 블루베리 16,571만 원/ha이었음.

표 3. 2016년도 품목별 FTA 폐업지원금 지급단가와 신청 현황

품 목	전체 농가수 (호)	전체 면적 (ha)	신청 현황		
			농가수 (호)	면적 (ha)	지급단가 (천 원/ha)
노지포도	37,645	12,346	3,207	1,108	58,353
시설포도	5,592	2,030	332	129	90,145
블루베리	15,140	5,957	1,156	426	165,705
소 계	58,377	20,333	4,695	1,662	

주: 신청농가 및 면적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기초로 산출하여 실제 지원 실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국내 포도 생산량 감소와 수입량 증가 전망

## 2. 2016년도 폐업지원 대상 품목의 수급 현황

### 2.1. 포도

#### □ 포도 재배면적은 2011년 1만 7천 ha에서 2016년 1만 4천 ha로 연평균 3.0% 감소

- 노지포도는 연평균 3.2% 감소추세이며, 2016년 재배면적은 1만 3천 ha
  - 2015년 노지포도 폐업면적은 1,406ha로 전체 면적의 11.1%가 폐업되었으나, 2016년 재배 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
- 시설포도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재배면적이 감소 하여 2016년 재배면적은 2,240ha
  - 2015년 시설포도 폐업면적은 269ha로 전체 면적의 9.9%가 폐업되어 2016년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7.3% 감소

표 4. 포도(노지/시설) 재배면적 및 생산동향

구 분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노지포도	시설포도	소계	
2011	14,978	2,467	17,445	269,150
2012	14,590	2,591	17,181	277,917
2013	14,129	2,802	16,931	260,280
2014	13,538	2,810	16,348	268,556
2015	12,690	2,707	15,397	258,950
2016	12,706	2,240	14,946	-

자료: 통계청 농업면적조사·농산물 생산조사

#### □ 포도(신선) 수입량은 2011년 이후 연평균 1.5% 증가

- 2011년 이후 국가별 연평균 수입량 증가율은 페루가 97.2%로 가장 높음.
  - 2016년 신선포도 수입량은 칠레산이 3만 4천 톤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미국 산과 페루산이 각각 7,523톤과 7,163톤임.
- 포도 수입은 미국산 관세인하와 국내 생산량 감소 등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sup>1)</sup>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과일 수급 동향과 전망.” 『농업전망 2017』.



## 포도농가 소득은 2012년 이후 감소추세, 블루베리 재배면적은 2010년 이후 증가추세

표 5. 포도(신선) 국가별 수입 동향

구 분	수입액(천 달러)				수입량(톤)			
	전체	미국	칠레	페루	전체	미국	칠레	페루
2011	114,761	14,485	99,541	734	45,189	5,770	39,179	240
2012	138,685	15,666	117,935	5,084	54,192	5,951	46,597	1,644
2013	176,798	20,082	144,320	12,396	58,743	7,579	47,413	3,751
2014	189,523	20,441	152,107	16,952	59,260	7,027	47,026	5,200
2015	201,160	17,943	154,672	27,261	66,193	6,034	50,631	8,983
2016	145,009	22,964	101,073	20,288	48,730	7,523	33,787	7,163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 포도농가 소득은 2012년 이후 감소 추세

- 포도농가 소득은 2012년 435만 원/10a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366만 원/10a, 2015년에는 359만 원/10a까지 하락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포도농가 소득은 연평균 11.8% 증가하였으나, 2012년 이후 연평균 6.2% 감소
  - 특히, 2014년 생산량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 등으로 포도농가의 소득은 2013년 대비 14.3% 감소

표 6. 연도별 포도농가 소득 동향

연도	단위: 원/10a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소득	3,481,392	3,883,661	4,352,285	4,269,716	3,659,151	3,589,722

주: 2013년 이전 소득 자료는 노지포도의 소득임.

자료: 농업진흥청 농산물소득자료.

## 2.2. 블루베리

### □ 냉동블루베리 수입량은 증가추세 이후 감소한 반면, 신선블루베리 수입량은 2013년 이후 연평균 33.9% 증가

- 냉동블루베리 수입량은 전년 대비 33.2% 감소, 신선블루베리 수입량은 전년 대비 4.8% 증가



## 블루베리 생산비 증가, 순수익 감소

- 2016년 냉동블루베리 수입량은 1만 톤으로 주로 미국(49.2%)과 칠레(44.4%)에서 수입하고, 신선블루베리는 칠레(78.5%)에서 가장 많이 수입됨.
- 칠레산 신선블루베리의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미국산은 전년 대비 31.7% 감소

표 7. 블루베리 국가별 수입 동향

단위: 톤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률(%)		
							평년 대비	전년 대비	
신선	소계	0	0	819	1,454	1,878	1,968	42.23	4.79
	칠레	0	0	475	923	1,257	1,544	74.46	22.83
	미국	0	0	344	531	621	424	-14.97	-31.72
냉동	소계	8,578	9,575	13,156	14,906	15,385	10,271	-18.13	-33.24
	미국	5,449	5,001	4,827	6,731	7,344	5,052	-11.79	-31.21
	칠레	1,058	3,288	6,664	7,331	7,000	4,561	-19.28	-34.84
	캐나다	1,883	1,203	1,490	596	844	568	-51.82	-32.70
	중국	5	1	84	183	155	52	-36.07	-66.45
	EU	90	61	68	65	43	39	-39.69	-9.30

주: 냉동과 건조 블루베리의 수입량은 신선블루베리 기준으로 환산(수율 각 85%와 9%)한 물량임.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통계.

### □ 2015년 국산 블루베리 생산비는 60.0% 증가한 반면, 순수익은 전년 대비 42.1% 감소

- 2015년 국산 블루베리 평균 소득은 725만 원/10a 수준이고, 순수익은 303만 원/10a 수준으로 전년 대비 각각 6.5%, 42.1% 감소
  - 조수입은 전년 대비 15.0% 증가하였지만 생산비 증가(60.0%)폭이 더 커 순수익 감소

표 8. 국산 블루베리 소득 현황

단위: 천 원/10a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증감률(%)	평균
조수입	13,670	11,902	13,690	15.02	13,087
경영비	5,139	4,157	6,445	55.04	5,247
소득	8,531	7,745	7,245	-6.46	7,840
생산비	7,865	6,659	10,656	60.02	8,393
순수익	5,805	5,242	3,034	-42.12	4,694

주 1) 연도별 소득자료는 경기, 전북, 전남 지역의 재배면적 가중치를 이용하여 산출한 평균값임.  
 2) 증감률은 전년(2014년) 대비 증감률을 나타낸 값임.  
 자료: 농촌진흥청 농산물소득자료.



# 작목 전환 의향을 조사함으로써 대체작목의 수급 동향을 예측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

## 3. 폐업지원 농가의 작목전환 의향 조사 결과

### 3.1. 설문조사 개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는 2016년도 폐업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작목전환 의향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sup>2)</sup>

- 조사는 2017년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6일간 실시되었으며 조사 대상은 2016년도 포도(노지, 시설), 블루베리 폐업지원 대상 농가 총 2,126호임.
  - 노지포도, 시설포도와 블루베리 폐업 농가 수는 각각 1,428호, 187호와 501호임.

표 9. 조사 대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 2016년도 폐업농가
표본 크기	• 총 2,126호(노지포도: 1,428호, 시설포도: 187호, 블루베리: 501호)
조사 방법	• 전화 조사
조사 수집도구	• 구조화된 질문지

□ 조사는 작목전환 의향을 조사함으로써 대체작목의 수급 동향을 예측하고자 함임.

- 조사 주요 내용은 폐업 농가의 폐업 이유와 향후 농업 지속 여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함.
  - 폐업 이후 농업을 지속할 의향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전환 의향 대체작목 정보와 선택 이유에 대해 조사함.
  - 본 자료는 조사 내용 중 대체작목 정보와 선택 이유 등 일부 결과만을 종합하여 정리함.

2) 농업인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등록 농가 중 2016년도 폐업지원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는 조사전문기관인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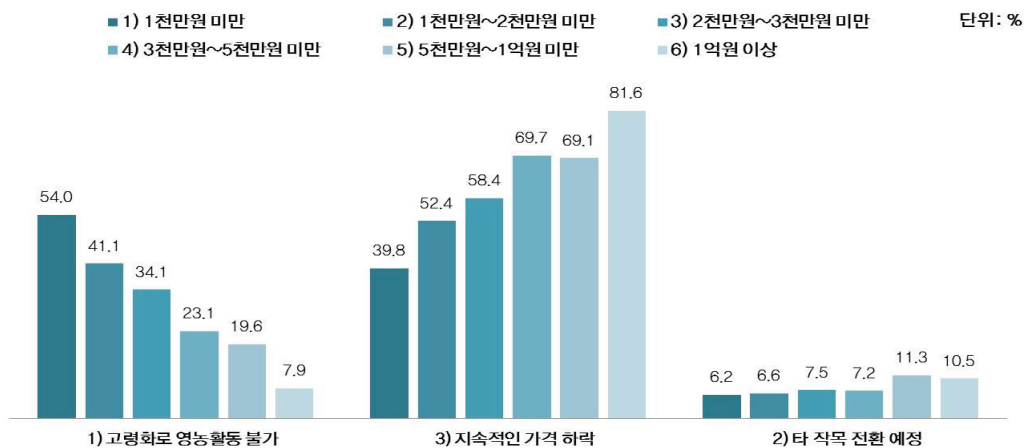
# 농가의 연평균 매출액별로 폐업지원의 이유가 상이

## 3.2. 작목전환 의향 조사 결과 분석

### □ 폐업지원을 신청한 주된 원인은 지속적인 가격하락과 고령화로 조사됨.

- 폐업지원 신청의 이유는 해당 품목의 지속적인 가격하락(46.4%), 농장주의 고령화로 인한 영농활동 불가능(38.5%), 타 작목으로의 전환 고려(6.3%)로 조사됨.
- 농가의 연 매출액 규모에 따라 폐업신청의 이유가 상이하었는데, 매출액이 작은 농가는 고령화로 인한 영농활동 불가능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고, 매출액이 많은 농가는 지속적인 가격하락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음.
  - 매출액인 1천만 원 미만 농가의 54.0%는 고령화를, 1억 원 이상인 농가의 81.6%가 지속적인 가격하락을 폐업지원 신청의 이유로 선택하였음.

그림 1. 농가의 연평균 매출액별 폐업지원 이유



### □ 폐업 농가 중 83.6%는 작목을 전환하여 농업생산을 계속하겠다고 응답

- 폐업을 신청한 농가 중 예정대로 폐업이 진행되는 농가(영농지속+영농포기)는 조사 농가의 96.0%를 차지하였고 폐업을 철회한 농가는 3.6%를 차지함.
- 영농지속 의사는 품목별 차이가 있었는데, 노지포도 농가의 80.5%, 시설포도 농가의 82.9%, 블루베리 농가의 92.8%가 영농 지속의사를 나타내었음.
- 폐업 신청 후 이를 철회한 농가의 비중은 3.6%(76농가)로, 철회의 이유는 대체할 작목이 없어서(폐업철회 농가의 69.8%), 폐업지원 단가가 낮아서(10.5%), 행정적 이유(10.5%)의 순으로 조사됨.

## 연령과 매출액에 따라 영농중단 농가 비중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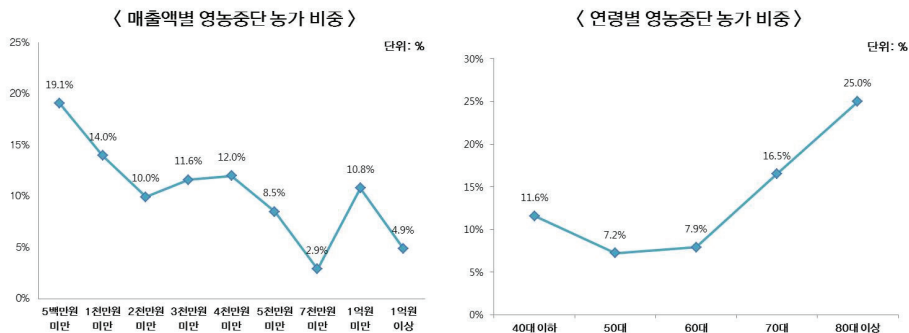
표 10. 폐업지원 농가의 영농활동 지속 여부

단위: %				
영농지속	영농포기	미정	폐업철회	계
83.6	12.4	0.5	3.6	100

주: 2017(2016)년도 조사는 2016(2015)년 폐업보상 신청과 보상이 이루어진 농가를 대상으로 함.

- 폐업보상 후 농업생산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비중은 12.4%로 나타났다.
  - 영농지속 의사는 농장주의 나이와 소득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영농중단 의사가 높았음.
  - 농장의 연매출액별 영농포기 의사는 매출액 500만 원 이하 농가 18.9%에서 1억 원 이상 농가 4.5%로 낮아졌음.
  - 농장주 연령별 영농포기 의사는 40대 이하 농가 10.9%에서 80대 이상 농가 24.7%로 높아졌음.

그림 2. 연령과 매출액에 따른 영농중단 농가 비중



### □ 폐업보상 후 전환작물로 선호하는 부류는 과수와 시설채소 및 과채

- 폐업보상 후 전환작물로 선호하는 부류는 과수, 시설채소 및 과채, 특용작물로 조사됨. 과수를 선택한 농가 비중은 36.1%, 시설채소/과채 28.0%, 특용작물 23.8%였음.
  - 조사 농가의 품목별로는 노지포도와 블루베리 농가는 과수를 전환작물로 선호하였고, 시설포도 농가는 시설채소/과채를 선호하였음.

## 폐업보상 농가가 전환작물로 선호하는 품목은 복숭아, 콩, 들깨의 순

표 11. 폐업보상 농가의 부류별 전환 분야

구 분	과수	시설채소/과채	특용작물	기타	벼	미정
계	0.361	0.280	0.238	0.145	0.087	0.024
노지포도	0.330	0.259	0.265	0.165	0.118	0.025
시설포도	0.374	0.458	0.148	0.084	0.039	0.006
블루베리	0.432	0.273	0.200	0.116	0.028	0.028

### □ 폐업보상 농가가 전환작목으로 선호하는 품목은 복숭아, 콩, 들깨의 순

- 폐업보상 농가가 전환작물로 선택한 품목은 복숭아 11.5%, 콩 9.3%, 들깨 9.2%, 벼 8.7% 등이었음.
- 과수부문에서 선택된 작물은 복숭아, 아로니아, 자두 등으로 이는 2016년 조사(2015년 폐업보상)의 복숭아(12.4%), 자두(8.5%), 사과(5.3%)와 유사한 결과임.

표 12. 폐업보상 농가의 품목별 전환작물

구 분	단위: %							
	복숭아	콩	들깨	벼	참깨	고추	아로니아	자두
비중	11.5	9.3	9.2	8.7	8.0	7.4	6.1	5.1

- 2016년 폐업보상을 신청한 면적은 품목별로 노지포도 1,108ha, 시설포도 129ha, 블루베리 426ha로 총 1,662ha로 집계됨.
  - 의향조사 결과 전환작물로 가장 많이 선택된 작목은 복숭아로 161ha가 전환될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2016년 복숭아 재배면적의 0.8%에 해당하는 면적임.
  - 과수부문에서 복숭아 외 전환작물로 선호된 것은 아로니아, 자두의 순으로 각각 재배면적 대비 4.5%(84ha), 1.0%(71ha)에 달하였음.

# 전환작물을 선택하는 기준은 재배의 용이성, 판로확보, 고소득의 순

표 13. 전환 품목별 재배면적과 비중

단위: ha, %

구분	복숭아	콩	들깨	벼	참깨	고추	아로니아	자두
2016 재배면적	19,877	49,014	45,474	778,734	27,170	32,181	1,871	7,033
전환작목 의향조사	161	130	128	121	111	103	84	71
비중	0.8%	0.3%	0.3%	0.0%	0.4%	0.3%	4.5%	1.0%

## □ 전환작물을 선택하는 기준은 재배의 용이성, 판로확보, 고소득의 순

- 조사농가가 전환작물을 선택하는 기준은 재배의 용이성(66.2%), 판로확보의 용이성(19.4%), 고소득 전망(18.3%)로 조사됨.

표 14. 전환작물 선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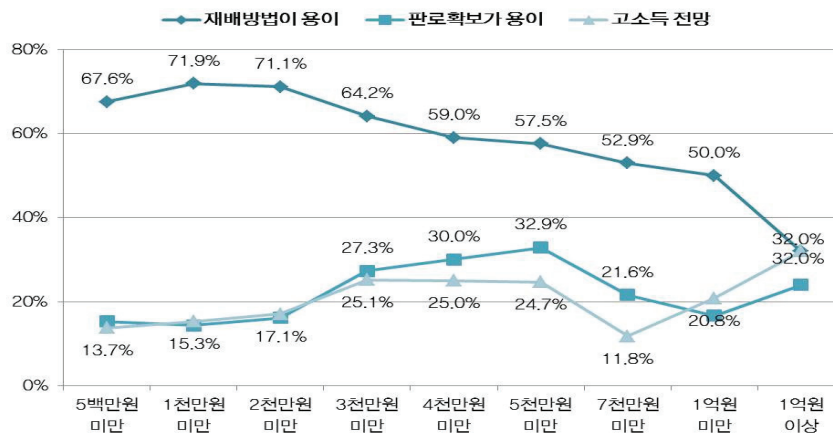
단위: %

재배방법이 용이	판로확보가 용이	고소득 전망	주산지이기 때문
66.2	19.4	18.3	8.5

주: 중복응답.

- 농가의 소득에 따라 전환작물을 선택하는 기준에 변동이 있었음.
  - 소득이 낮은 농가는 재배의 용이성에 가장 중점을 두었으나 소득이 높은 농가일수록 고소득 작목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1억 원 이상 농가의 경우 재배의 용이성과 고소득을 선택한 농가의 비중이 32.0%로 같아졌음.

그림 3. 전환작물을 선택한 이유



## 폐업 후 전환품목이 특정 품목으로 집중되어 가격 하락 우려

### 4. 요약 및 시사점

#### □ 2016년 폐업보상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지속 의향과 전환작목을 조사함.

- 폐업보상을 신청한 이유는 해당 품목의 지속적인 가격 하락과 고령화로 인한 영농의 어려움이었음.
- 폐업보상 농가의 83.6%는 품목을 전환하여 농업생산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하였음.
  - 2016년 폐업농가 조사(2015년 보상)에서 영농지속 의사를 가진 농가는 84.3%였음.
- 폐업보상 농가가 전환작물로 선호하는 부류는 과수, 시설채소/과채이고, 품목별로는 복숭아, 콩, 들깨의 순으로 조사됨.
  - 전환품목으로 복숭아 등 과수부류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이는 2016년 폐업농가 조사와 동일한 결과임. 2016년 조사 결과 과수 부류를 선택한 비중은 38.3%, 과수에서 복숭아를 선택한 비중은 32.5%였음.
- 전환작목을 선택하는 기준은 재배의 용이성, 판로확보의 용이성, 고소득 전망의 순으로 조사됨.

#### □ 폐업 후 전환품목이 특정 품목으로 집중될 경우 가격 하락의 우려가 있음.

- FTA로 인한 시장개방으로 포도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포도에 대한 FTA 피해보상과 폐업보상이 2년 연속 이루어졌음. 폐업 보상을 받은 농가는 작목을 전환하여 농업생산을 지속하고 있음.
- 신선 복숭아는 검역요건으로 수입이 금지되어 있어 FTA에 따른 시장개방의 직접 영향에서 벗어나 있고 비교적 재배가 용이한 품목임. 이에 따라 폐업보상을 받은 농가가 전환작목으로 선호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은 매년 꾸준히 증가<sup>3)</sup>하고 있음.

3) “재배면적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은 복숭아 가격이 다른 과일에 비해 높은 편이며, 출하기간(6~9월)이 상대적으로 짧아 노동력 등 경영비 부담이 적기 때문.” (농업전망 20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폐업보상효과는 2019~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

표 15. 연도별 복숭아 재배면적

단위: ha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면적	13,908	13,795	14,335	14,633	15,539	16,704	19,877

자료: 통계청.

- 폐업보상 농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폐업면적의 12.4%(2015년), 11.5%(2016년)가 복숭아로 전환되었음. 이는 복숭아 재배면적의 1.3%(2015년), 0.8%(2016년)에 해당함.
- 향후에도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FTA 폐업보상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폐업 농가의 품목 전환 또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복숭아가 폐업 후 전환 품목으로 선택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복숭아 재식 후 성목이 되는 기간은 4년으로 알려져 있음. 2015년과 2016년 폐업보상으로 인한 작목전환 효과는 각각 2019년과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이는 복숭아에 대한 재배 의향이 집중되더라도 즉시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고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락 압력도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함.
- 유목기간이 경과하고 생산량 증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복숭아 생산 과잉과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숭아 농가의 피해가 우려됨.
- 관측 기능과 정책 홍보기능을 강화하여 폐업지원 대상 농가가 대체작목을 선택할 때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해 작목 전환에 따른 2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 KREI 현안분석 제33호

2016년 폐업지원 대상 농가의 작목전환 의향 분석과 시사점

---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17. 5. 17.  
발 행 인 김창길  
편집위원 김수석, 마상진, 황윤재, 이대섭, 지인배, 심재현, 구자춘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한디자이크퍼레이션  
02-2269-9917 [admin@han-d.co.kr](mailto:admin@han-d.co.kr)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